

반박해 19년, 미국 뉴욕 파룬궁 수련생 집회

[명혜망] 2018년 7월 16일, 미국 대 뉴욕 지구에서 온 일부 파룬궁(파룬따파) 수련생들이 맨해튼 12번가의 중국 대사관 옆에 모여 집회와 촛불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19년 동안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박해에 항의하고,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애도했다.

박해는 반 인성적 학대이자 전대미문의 재난

파룬따파 정보센터 대변인 장얼핑 씨가 집회에서 발언했다. “파룬따파는 불가(佛家) 최고의 수련 대법으로, 1999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1억이 넘는 사람이 수련했습니다. 당시 중공 우두머리 장쩌민은 수련자 수가 중공 당원 수를 넘어선 것을 보고 소인배의 질투심이 일어나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19년 동안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신원이 확인된 박해 사망자만 4천여 명에다가,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범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박해는 인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파괴이며 전대미문의 재난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더욱 많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인류를 거역하는 역사상 최대의 이번 박해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중공의 박해를 저지하는 행렬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인류 도덕의 최저선과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회를 잡아 중공을 배척하고 광명을 맞이하자



뉴욕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추모하고, 중공의 박해를 공동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탈당 서비스센터 주석 이룽 씨가 말했다. “광적인 탄압에 직면한 파룬궁 단체는 줄곧 ‘진선인(真善忍)’의 신앙을 견지하고, 고귀한 중국인들에게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하면서 지금까지 3억 중국인의 중공 당, 단, 대 탈퇴를 도왔습니다. 동시에 파룬궁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며 전 세계 5대주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저는 중공이 강요하는 공포와 슬픔을 용감하게 벗어던질 것을 중국인에게 호소합니다. 역사적인 기회를 붙잡아 중공을 배척하고 빨리 ‘3퇴’해 광명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러 온 경찰이 기쁘게 ‘3퇴’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품위 넘치는 젊은이가 ‘3퇴’하다

[랴오닝 투고] 한번은 내가 밖에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리는데, 서른 살 남짓한 품위 넘치는 젊은이가 서류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미소를 띠며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말했다. “이모가 보니 젊은이는 훌륭한 인물이고, 틀림없이 고학력의 문화 엘리트 같네요. 이모는 부처 수련을 하는 사람이고 연분을 이야기해요. 젊은이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근래에 천재인화가 이렇게 많고, 모두가 큰 겁난이 온다는 걸 아는데, 평안을 보전하고 겁난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젊은이는 당, 단, 대에 가입했나요?” 그가 말했다. “예.”

내가 말했다. “젊은이가 마음속으로 자신이 가입했던 당, 단, 대 탈퇴를 성명한다고 생각한다면 신분이 젊은이를 평안하도록 보호해줄 거예요. 어째서 당, 단, 대를 탈퇴해야 평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요. 그건 공산당이 정권수립 이후로 좋은 일이라곤 안했기 때문이에요. 역대 운동 중에 선량하고 무고한 중국인 8천만 명을 살해했어요. 1989년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 살해했고, 1999년부터는 ‘진선인’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수련하는 파룬궁 단체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으로,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도덕성을 높여서 사회와 가정에 이익을 줘요. 장쩌민은 질투심 때문에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고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극을 만들었어요. 파룬궁에 먹칠하는 거짓말로 전 중국인과 전 세계인을 속였어요. 또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 구타, 노고, 유죄판결 등으로 박해했어요. 더 잔인한 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거예요. 천리가 용서치 않을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리는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젊은이가 당, 단, 대에 가입했다면 곧바로 그의 한 분자여서 그의 순장품이 되어야 해요. 젊은이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 성명을 하면 평안을 얻고 겁난을 넘길 수 있어요. 젊은이, 이모가 탈퇴 성명을 하도록 도와줄까요?”

“좋아요!” 그는 격동되어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모!” 나는 그의 이름을 묻은 다음 그에게 파룬궁 자료를 주었다. 이어서 그에게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기억했다고 말하고는 떠나가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란을 피우러 온 경찰이 기쁘게 ‘3퇴’하다

[대륙 투고] 2018년 7월, 현지 파출소가 관할 구역의 파룬궁 수련생 근황을 조사하라는 상급의 통지를 받았다. 방문 조사 내용 중에는 여전히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지, 문화수준, 경력, 다른 식구들과의 연락 방법 등이 포함돼 있었다. 어느 날, 한 노년 수련생 부부가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질문을 하는 동안 부부로부터 파룬궁 진상을 들었다. 파룬궁 수련생이 말했다. “당신도 진상을 알고 생명을 구해야 하고, 우리도 당신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은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듣고,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기쁜 목소리로 연달아 말했다. “탈퇴해요, 탈퇴해요. 저는 모모(실명)인데, 당, 단, 대 원이에요. 탈퇴해요, 탈퇴해요.” 그는 싱글벙글하며 돌아갔다.

반(反)박해 19년, 올바른 믿음이 서광을 맞이하다

[명혜망] 1999년 7월 20일, 중공과 장쩌민 집단은 모든 국가 기관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했고, 모든 매체, 사법, 군경, 특무, 당정, 외교를 동원해 전 방위로 박해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적어도 4,20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목숨을 잃었고, 헤아릴 수 없는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해 간수소, 노교소, 감옥, 세뇌반과 정신병원에 보내져 장애를 얻고, 직업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고, 가정을 파괴당했다.

19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들은 대선대인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성적이고 관용적인 방식으로 인성을 상실한 이번 박해를 저지하고, 세인들의 양지와 선념을 일깨웠다.

개과천선하여 공개 '3퇴'하다

중국 국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정책은 갈수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지를 당하고 있다. 대륙에서 폭로된 소식에 의하면 중공의 일부 관원은 퇴로를 남기기 위해 개인적으로 문건을 수집,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핍박에 의해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중공의 불법 기관)'의 박해 명령에 따랐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수많은 당위서기, 공안, 국보대대 사람은 잇달아 올바른 길로 전향해 개인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진상을 깨달은 관원, 간부, 고용주, 수련생의 친구는 심지어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

2004년 말 '대기원시보'가 발표한 시리즈 사설 '9평 공산당'은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3퇴' 열풍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서 '3퇴' 성명을 발표한 사람은 3억1천만 명에 이른다. 수많은 중국 민중은 일찍이 중공의 거짓말에 속

아 파룬궁을 증오했으나, 현재는 모두 파룬궁 수련생이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임을 안다. 수많은 사람이 '9평'을 읽은 후 주동적으로 '3퇴'해 중공 사령의 억압에서 벗어났다. 파룬궁에 대한 태도도 동정과 이해에서 점차 인정과 지지로 변했고, 심지어 수많은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무죄 판결을 위해 변호에 나섰다.

'3퇴'하는 사람 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명으로 '3퇴'를 하던 것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3퇴'를 하며, 일반 당, 단원에서 현재는 정계, 군대와 공, 검, 법 고위 간부, 나아가 외국 주재 중국 영사관 관원 가족이 공개적으로 '3퇴'를 함으로써 폭정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관광지에서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 집단으로 '3퇴'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정의의 외침

파룬궁 수련생들은 세상을 속이는 중공의 거짓말과 박해 범죄를 알리는 활동을 일 년 내내 견지하고 있다. 진상이 널리 전해짐에 따라 마를 물리치는 기세도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10여 년 동안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국제사회와 대만 의회는 이미 수십 차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저지'라는 국제사회의 외침은 하나의 물결을 이루며 이번 박해가 막바지로 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 즉각 석방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제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8년 6월 8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다

나 로라바커는 중국 민중의 공산당 및 부속 조직 탈퇴를 성원하고, 파룬궁 박해의 즉각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제932호 결의안'을 발기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미국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장쩌민과 뤼간, 저우융강, 보시라이, 샤더란, 자오즈전, 황화화 등 파룬궁 박해에 적극 가담한 약 60명의 중공 관원들이 2002년 이후 전 세계 5개 대륙 30여 국가와 지역에서 '반인류죄', '고문죄', '집단학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중국대륙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고소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위풍당당한 국내의 '장쩌민 고소', 그리고 악인(惡人)을 징벌하고 정의를 바로잡자는 외침은 이미 또 하나의 절정에 이르렀다.

마귀 척결의 여명이 보인다

19년이 지났다. 애초에 미친 듯이 날뛰면서 파룬궁을 3개월 안에 타도하겠다고 망상했던 중공과 장쩌민 집단은 현재 남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최후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19년 동안 국내외 파룬궁 수련생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진상을 전파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의로운 행동을 펼쳤고, 칙흑 속에서 타오르는 햇불처럼 사람들의 광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인도했다. 비록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희망컨대 더욱 많은 세인이 양지를 발휘해 정의와 선량의 편에 서서 공동으로 이번 박해를 하루 빨리 끝내기를 기대한다.

['3퇴'하여 복을 받다]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대륙 투고] 나는 농민인데, 집은 헤이룽 장의 외지이고 작은 집에 있으며, 차를 한 대 사서 화물 운수업을 하며 생활을 유지한다.

2018년 3월 3일, 하늘에서 함박눈이 쏟아져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도 흐렸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촌민이 소 몇 마리를 몰고 가는 것이 보였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를 멈출 수 없었고,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핸들만 죽여야 할 수밖에 없었다. 차는 단번에 노면을 벗어나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끼었고, 운전실이 납작해졌다. 몸 주위에 조금의 공간도 없어 나는 안간힘을 쓰면서 휴대폰을 조금씩 꺼내어 황급히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가 왔지만, 속수무책이었고, 문짝과 운전실이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찌

그러져 나를 구해낼 수가 없었다. 서둘러 가까운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소방과 교통경찰은 현장에 와서 보더니 이렇게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운전사가 살아 있다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파룬궁 제자가 말해준 진상을 듣고, 중공의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4시간이 지나서야 구출됐는데, 압박당한 오른쪽 다리는 움직일 수 없고 보온을 하지 못해 계속 얼어 있었다. 나는 다리에 장애를 입으면 앞으로 밥벌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병원에 후송돼 각종 검사를 하니 신체의 다른 부위에는 이상

이 없고 다리도 아주 빨리 회복되었는데, 오른쪽 다리의 인대만 끊어져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얼마 동안 회복한 뒤에 와서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비는 10여만 위안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날마다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외었다. 얼마 후 다리는 정상으로 회복됐다! 나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10여만 위안의 수술비를 아끼게 되었다.

나에게는 위로 70여 세의 노인이 있고, 아래로는 미성년인 아들이 있다. 만약 내가 쓰러졌더라면 가족들이 더 비참해졌을 텐데, 이렇게 나았고, 수술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목숨을 구해주신 파룬궁 사부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